

이슈

2

2019년 3월 6일 수요일
스포츠동아 제3035호



이세돌의 활동중단 선언. 이세돌의 트레이드마크였던 강렬한 눈빛을 이제 더 이상 보기 어려워질 듯하다. 사진제공 | 한국기원

“올해가 마지막인 것 같다”...바둑스타 이세돌 은퇴선언?

블러드랜드배 대국서 폭탄 발언
“커제같은 후배들 이기기 힘들어”

바둑스타 이세돌 9단(36)이 승부의 세계를 떠난다. 이세돌은 5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벌어진 '3.1운동 100주년 기념 블러드랜드배 특별대국'에서 중국의 최고수이자 라이벌인 커제 9단과 맞대결을 펼쳤다. 결과는 156수 만에 이세돌이 돌을 던져 흑 불계패.

국후 기자회견에서 이세돌은 “여섯 살에 바둑을 시작해 1995년 프로 입단했다. 시간이 꽤 됐다. 아마 올해가 마지막

인 것 같다”고 폭탄발언을 했다. “은퇴 선언이나”는 질문에 대해서는 “아직 완벽히 정한 것은 아니지만 장기간 휴직이나 은퇴 중 하나를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프로기사로서 공식대회에 참가해 승패를 겨루는 승부사로서의 길은 더 이상 가지 않겠다는 얘기이다.

활동을 중단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커제 9단을 가리키며 “이런 후배기사들에게 앞으로 이기기 힘들겠다고 생각했다. 개인적으로 지지기도 했다”고 털어놨다.

이세돌은 “비록 승부사로서의 역할은 그만 두더라도 바둑인으로 계속 남을 것

이다. (올해를) 잘 마무리하고 싶다”고 했다. 이어 “(활동중단은) 갑작스런 결심이나 오랫동안 생각해 온 것”이라며 “작년에 할까도 생각했지만 아쉬움이 남아 1년을 더 하려고 했다”고 덧붙였다.

이창호 시대를 이어받아 한국바둑계의 사실상 마지막 전성기를 이끌었던 이세돌은 2016년 인공지능 알파고와 세기의 대결을 펼쳐 세계인에게 감동을 선사했던 인물. 알파고와 대결해 유일하게 승리를 거둔 ‘인간’으로 남아있다.

양형모 기자 ranbi@donga.com

야구계 화제로 떠오른 故 박용곤 두산그룹 명예회장의 야구사랑

‘김일용 이적료’ 대신 2군 야구장에 투자

(1983년 약 5500만엔)

내가 왜 떴게?

부어도 예쁜 당신



박은혜

●박은혜, 코뼈 부상
누워서 링글거리며 휴대폰을 들여다보다 그만 툭 놓쳐 얼굴을 강타 당하는 불쾌한 경험을 겪어왔을 것이다. 연예인 스타도 다를 게 없다. 배우 박은혜는 “누워서 휴대폰을 보다가 툭 떨어뜨렸는데 코뼈에 정확히 맞았다. 너무 아팠지만 설마 별일 없겠지 생각했는데 부었다. 엄청 빨갛게 부어올라서 너무 웃기다”며 부은 코 사진을 올렸다. 많이 아팠겠어요. 그런데 예쁜 사람은 부어도 예쁘시군요.

04나 19나



김정근 아나운서

●김정근 아나운서, MBC 재입사
김정근 아나운서가 MBC에 입사했다. 김정근 아나운서가 인스타그램에 올린 사진에는 동료, 후배들이 걸어놓은 것으로 보이는 환영 플래카드가 담겨있다. ‘지금까지 이런 입사는 없었다’, ‘이것은 04사번인가 19사번인가’라는 문구에서 웃음과 애정이 동시에 느껴진다. 김정근 아나운서는 2004년 MBC에 입사했다가 2017년 퇴사했고, 이번에 다시 입사했다. 18사번들이 애매하겠네. “선배님, 이거 복사 좀 해다 줄래... 요(?)”.

네 뒤에 아빠있다



●개리, 흔한 육아일상

리쌍 출신의 개리가 SNS에 올린 육아 일상 사진이 눈길을 끈다. 장난감 피아노를 두드리고 있는 아들을 뒤에서 무심히 바라보는 아빠의 두 손에는 역시 장난감 기타가 들려있다. 야구 모자를 쓰고 하얀 마스크까지 착용한 개리의 모습이 웃음을 자아낸다. 잘 하고 있어요, 아빠는 그렇게 말없이 뒤에서 자식을 밀어주는 겁니다.

삼성과 영입전서 발 빠고 미래 투자
훗날 ‘이천 베이스파크’로 다시 결실
휠체어 타고 야구장행...“그립습니다”

1983년 장명부(1950~2005년)가 삼미 슈퍼스타즈 유니폼을 입고 427.1이닝을 던져 30승(16패6세이브)을 올리자 각 구단은 재일교포 투수 영입에 경쟁적으로 뛰어 들었다. 당시만 해도 30대 투수는 은퇴시점을 훌쩍 넘긴 노장중의 노장이라는 인식이 강했지만, 장명부는 33세에 평균자책점 2.34라는 믿기지 않는 기록을 남겼다.

OB 베이스(현 두산)는 요미우리 자이언츠에서 미래의 에이스로 꼽혔던 김일용을 영입하려고 시도했다. 고 박용곤 구단주(1932~2019년)가 요미우리신문사 최고경영진과 접촉한 끝에 트레이드 성사를 눈앞



故 박용곤 구단주

엔이라는, 당시로선 전문학적인 액수를 요미우리에 제안했다.

박용곤 구단주는 망설임 없이 김일용 영입작전에서 물러났다. 그 대신 경남 창원에 2군 전용 야구장을 건립했다. ‘그 돈이면 차라리 연습장을 지어 미래에 투자하겠다’는 전략적 판단에서였다. 한동안 OB 선수들은 그 야구장을 ‘나우라(김일용의 일

에 왔다.

일본리그 커리어에서 장명부보다 앞서는 슈퍼 에이스를 품으려는 순간 삼성 라이온즈가 뛰어 들었다. 삼성은 이견희 구단주의 주도로 이적료를 합쳐 5500만

엔이라는, 당시로선 전문학적인 액수를 요미우리에 제안했다. 박용곤 구단주는 망설임 없이 김일용 영입작전에서 물러났다. 그 대신 경남 창원에 2군 전용 야구장을 건립했다. ‘그 돈이면 차라리 연습장을 지어 미래에 투자하겠다’는 전략적 판단에서였다. 한동안 OB 선수들은 그 야구장을 ‘나우라(김일용의 일

본명) 구장’으로 불렸다. 한국프로야구 역사에 기억될 최초의 2군 전용 구장이었다. 김일용은 1984년부터 1986년까지 3년간 삼성에 54승과 한 차례의 통합우승(1985년)을 선물했다. 그리고 두산은 오래도록 빛나는 ‘화수분 야구’를 얻었다.

4일 영면한 박용곤 두산그룹 명예회장은 생전 야구에 대해 극진한 애정을 보였다. 운영철학도 남달랐다.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강조했고, 그 유산은 메이저리그 출신 선수들도 극찬하는 경기도 이전의 베이스파크로 결실을 맺었다.

1998년 OB는 이전의 맥주공장 기숙사를 개조해 핵심 유망주들을 전략적으로 육성하는 훈련장을 만들었다. OB 2군 선수들은 이곳에 들어가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펼쳤다.

프로야구 프리에이전트(FA) 시장이 폭등하기 시작한 2005년 두산은 이전에 베어

스필드를 완성했다. 약 2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특급 FA 선수를 싸쓸이할 수 있는 돈이었지만, 두산의 선택은 미래였다.

두산은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토지매입 비용이 포함되지 않은 550억 원을 2군 훈련장에 더 투자했다. 2014년 베이스파크로 이름을 바꿔 재개장한 이 곳은 최첨단 종합재활훈련시설을 갖췄다. 잠실구장과 관중석만 다른, 똑같은 크기의 야구장도 지었다. 퓨처스리그 선수들이 1군으로 승격했을 때 곧장 그라운드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투자다.

나이가 들면서 휠체어를 이용했지만 표정만은 소풍 가는 어린이가 같았던 박 전 구단주를 이제 더 이상은 잠실구장에서 볼 수 없다. 그러나 해안이 담긴 야구단에 대한 고인의 철학은 여전히 베이스 유니폼에 남아있다. 이경호 기자 rush@donga.com



박성현이 4일 필리핀 라구나 더컨트리클럽에서 현지 팬들에 둘러싸인 가운데 원포인트 레슨을 하고 있다. 여자골프 세계랭킹 1위를 탈환한 박성현은 6일 필리핀여자골프투어(LPGT) 더컨트리클럽 레이디스 인비테이셔널에 출전한다. 사진제공 | 세미스프로마케팅

우리도 ‘왕이 된 남자’처럼!...리메이크 드라마들 자신감

‘라디오...’ ‘수상한...’ ‘신과함께’
차별화를 통한 성공 긍정적 기운

드라마 ‘왕이 된 남자’가 시청자 시선몰이에 성공하면서 이후 선보일 흥행 영화의 리메이크 드라마도 긍정적 기운을 받고 있다. 원작 영화의 흥행은 후광인 동시에 부담감으로도 작용하는 요소여서 해당 드라마 제작진은 ‘왕이 된 남자’의 성공에 자신감을 얻고 있다.

무대는 영화와 같은 제목으로 제작되는

드라마 ‘라디오스타’ ‘수상한 그녀’ ‘신과함께’이다. 2006년 ‘라디오스타’는 150만 여명, 2014년 ‘수상한 그녀’는 860만여 명, 지난해와 올해 ‘신과함께’는 1·2편 총 2600만여 명의 관객을 동원하며 인기를 끌었다. 개봉 당시 출연진의 연기, 완성도 높은 이야기와 연출로 관객들로부터 합격점을 받아 드라마 제작으로까지 이어졌다.

각 드라마는 원작 영화를 기반으로 두고 재창조하는 과정을 통해 새로운 창작물로 시청자에게 다가갈 전망이다. ‘왕이 된 남자’가 영화 ‘광해, 왕이 된 남자’를 리메이크

하면서 호평을 받은 것도 원작과는 전혀 다른 시대적 배경과 감성을 내세워 영화가 남긴 정서를 해치지 않은 차별화한 전략 덕분이었다.

한 드라마 제작사 관계자는 “리메이크의 성공 여부는 원작의 정서를 얼마만큼 잘 유지하면서 이를 새롭게 변형하는지에 달렸다”며 “드라마는 영화의 2시간여 러닝타임 분량을 최대 16시간(16부작)으로 늘려야 해 새로운 에피소드를 어떻게 담아낼 것인가 문제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백솔미 기자 bsm@donga.com

▶1면 ‘필리핀 영웅’ 된 박성현에서 이어집니다

이처럼 더할 나위 없는 환대를 받고 후원조인식을 마친 박성현은 6일 필리핀 라구나 더컨트리클럽에서 개막하는 LPGT 더컨트리클럽 레이디스 인비테이셔널을 통해 필리핀 무대를 처음 밟는다. 이번 출전은 후원 계약 세부조건을 통해 이뤄졌다. 박성현의 LPGT 정규대회 참가가 계약 내용에 포함됐고, LPGA 투어가 열리지 않는 이달 첫째 주를 박성현 측이 디테일로 잡으면서 필리핀 입성이 성사됐다. 이번 대회는 6일부터 8일까지 3라운드 경기로 펼쳐진다.

편집 | 안도영 기자 do02@donga.com